

研究論文

16세기 국어 어미의 양성모음화 연구

배영환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국어학 전공
baeyh@seowon.ac.kr

I. 머리말

II. 양성모음화의 실현 양상

III. 양성모음화의 원인

IV. 맺음말

이 논문은 2011년 12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이 글은 16세기 국어의 어미구조체에 나타나는 양성모음화 현상을 고찰한 것이다. 16세기는 국어사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성격을 띤다(한재영, 1996: 12)’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전환되면서 국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16세기는 흔히 중세국어로 분류되면서도 이 시기에 이미 근대국어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량기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듯이 16세기에는 15세기 국어에 비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16세기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음의 소멸, ‘.’음의 변화와 모음조화의 붕괴, 성조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선어말어미 ‘-오/우-’의 변화나, 공손법의 ‘-이-’의 소멸, ‘-습-’의 형태 변화, ‘-앗/엇-’의 일반화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어미의 ‘양성모음화’ 현상 또한 중요한 특징인데, 이들 양성모음화된 어미는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1) 가. 功德이 하녀 몯 하녀 <월석, 17:48b>
나. 太子의 니르논 말와 곶냐 <변소, 9:46b>
- (2) 가. 훤디 가 들져 햏든 <석상, 19:6b>
나. 혼냐 햏자 期約 햏앗더니 <속삼강, 열:2a>

위의 (1)과 (2)는 종결어미 중에서 양성모음화를 겪은 예를 제시한 것이다. (1가)에서 15세기 국어에서는 의문법 어미 ‘-녀’가 일반적이지만 (1나)의 16세기 국어에서 ‘-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가)에서는 중세국어의 공동법 어미가 ‘-져’였지만, (2나)의 16세기 국어에서 ‘-쟈’ 형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대체로 ‘양성모음화’로 불러왔지만 양성모음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어미의 양성모음화에 대한 연구는 해당 종결어미를 논의하는

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에서 대립의 축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뉘는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3) 국어 모음조화의 대립관계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5px;">ㅏ</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5px;">·</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0 5px;">ㅑ</td> </tr> <tr> <td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0 5px;">ㅓ</td> <td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0 5px;">ㅡ</td> <td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0 5px;">ㅕ</td> </tr> </table>	ㅏ	·	ㅑ	ㅓ	ㅡ	ㅕ		ㅣ
ㅏ	·	ㅑ						
ㅓ	ㅡ	ㅕ						

위의 예는 15세기 국어의 모음조화의 대립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양성모음 계열(ㅏ, ·, ㅑ)과 음성모음 계열(ㅓ, ㅡ, ㅕ)의 대립에 기초해 있고 ‘ㅣ’는 중립 모음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은 『훈민정음』의 기술에 바탕을 둔 것인데²⁾, 훈민정음의 자형을 정할 때도 ‘음’과 ‘양’의 개념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모음조화의 대립관계를 고려해볼 때 국어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대립체계에서 기본적인 조건성이 있다. 양성모음화의 기본적인 대립은 ‘ㅓ’가 ‘ㅏ’로 변화하는 것과 ‘ㅡ’가 ‘·’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ㅕ’가 ‘ㅑ’로 변화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³⁾ 그러나 실제로 어미 가운데 ‘ㅡ’가 ‘·’로 변화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ㅕ’가 ‘ㅑ’로 변화하는 것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어미 가운데 양성모음화를 보여주는 예는 대체로 ‘ㅓ’가 ‘ㅑ(어>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러한 양상은 어미의 양성화 성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미의 양성모음화가 아니라 ‘어>아, 또는 여>야’의 변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미의 분포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중세국어에서 어미 가운데 ‘ㅡ’로 시작하는 어미나 ‘ㅕ’로 시작하는 어미가 거의 없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모음조화에 의해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기

2) 『訓民正音』 解例 制字解의 “ㅏㅓ ㅑㅕ 之圓居上與外者 以其出於天而爲陽也 ㅓㅕ ㅓㅕ 之圓居下與內者 以其出於地而爲陰也”와 같은 기술에서 ‘陽’과 ‘陰’의 개념을 엿볼 수 있다.
 3) 물론 ‘ㅓ’가 ‘ㅏ, ㅑ’, ‘ㅓ’가 ‘ㅓ, ㅡ’ 등으로 변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ㅓ:ㅓ, ·:ㅡ, ㅑ:ㅕ’가 기본 축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그러므로 어미의 양성모음화란 용어 대신 ‘어>아’ 또는 ‘여>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성격을 잠정적으로 ‘양성모음화’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때문에 어미의 양성모음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어렵다. 어미의 양성모음화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들은 ‘ㄱ:나, ㅡ:; ㅍ:나’와 같이 모음조화에 의해 교체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미의 양성모음화의 범위에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대체로 ‘어>아, 또는 여>야’에 국한되어 있다.

어미의 양성모음화를 논의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어미가 음성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변화의 결과로 양성모음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음성모음 존재 조건으로서, ‘화(化)’라는 것은 해당 속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어떠한 이유로 해당 속성을 획득했을 때 가능한 표현이다. 이를 자질로 표현한다면 [-양성모음성]을 가진 존재가 [+양성모음성]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에서 본래부터 양성모음 형태로 나타나는 어미들은 양성모음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가령 설명법 어미의 ‘-다, -라’나 의문법 어미 ‘-가, -고’, 명령법 어미 ‘-라’, 약속법 어미 ‘-마’ 등은 이전 시기부터 양성모음 형태로 존재했으므로 양성모음화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음성모음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미의 양성모음화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양성모음화와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한편 양성모음화에서 고려해볼 또 다른 조건은 해당 형태소가 이형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양성모음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종의 ‘이형태 관계 조건’으로 부를 수 있는데, 어미 가운데 이형태로 조건을 맺을 경우 양성모음화가 적용되기 어렵다. 중세국어의 어미의 이형태는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특히 모음조화에 의해 이형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모음조화에 의해 이형태 관계에 있는 어미의 부분들은 양성모음화의 대상으로 다루기 어렵다. 예를 들면 명령형 어미 ‘-아씨’나 ‘-어씨’, 연결어미 ‘-오되/우되’ 등, ‘-아/어-’나 ‘-오/우-’와 같이 모음조화에 의해 분화된 형태는 양성모음화에 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⁵⁾ 모음조화에 의해 대립된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양성모음화의 고려 대상이 된다.

또 어미의 양성모음화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선어말어미의 문제이다.

5) 이들은 공시적인 교체관계에 있는 형태로 통시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양성모음화와는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어미는 대체로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뉘는데, 선어말 어미 가운데 양성모음화를 겪는 어미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세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습-, -느-, -도-’ 등과 같이 양성모음 계열이거나 아니면 ‘-시-’ 등과 같이 중립 모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어, -아어, -가/야’ 등과 같이 이형태 관계에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유일하게 음성모음으로 구성된 선어말 어미 ‘-더-’가 존재하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형태가 직접적으로 ‘-다-’로 나타나지 않는다.⁶⁾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어미의 양성모음에 대한 기초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조건 1: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ㄷ>ㅌ, ->, ㅌ>ㄷ’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ㄷ>ㅌ(ㄷ>ㅌ)’에 국한된다.
- 조건 2: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어미의 구성 성분상 음성모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조건 3: 모음조화 등에 의한 이형태 관계에 있는 어미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양성모음화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조건 4: 선어말어미는 어미의 양성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제시된 내용은 16세기 국어의 양성모음화를 다루기 위한 기본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 양성모음화가 나타나는 예를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2. 종결어미의 양성모음화 양상

중세국어의 종결어미는 화자의 태도, 즉 서법에 따라 ‘설명, 감탄, 의문, 공동, 명령, 허락, 약속’ 등 일곱 가지로 나뉘는데(안병희·이광호, 1990: 239), 그 목록을 대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가. 설명법 어미: -다, -라

6) 물론 ‘-더+오-’의 형태가 ‘-다-’로 나타나는 예가 있지만 양성모음화에 의해 나타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 나. 감탄법 어미: -도다, -고나, -괴여, -ㄴ더, -ㄴ썌
- 다. 의문법 어미: -가, -고, -녀, -뇨, -려, -료, -ㄴ가, -ㄴ고, -ㄴ다, -이썌, -이썌녀
- 라. 공동법 어미: -져, -져라, -사이다
- 마. 명령법 어미: -라, -아라/어라, -아썌, -쇼셔, -고려, -고라, -지라
- 바. 약속법 어미: -마

위의 예는 안병희·이광호(1990)에서 제시한 종결어미의 목록이다.⁷⁾ 앞에서 제시한 양성모음화의 조건에 따라 우선 고려할 사항은 어미 가운데 음성모음으로 구성된 어미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래부터 양성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양성모음화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결어미에서 일차적으로 양성모음화를 겪을 수 있는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5) 종결어미의 양성모음화 실현 가능성 목록

- 가. 감탄법 어미: -괴여, -ㄴ더, -ㄴ썌
- 나. 의문법 어미: -녀, -려, -썌녀
- 다. 공동법 어미: -져, -져라
- 라. 명령법 어미: -아썌, -쇼셔, -고려

위의 (5)를 보면 종결어미 중에서 양성모음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을 갖춘 목록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어미의 음절구조가 우연히도 ‘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예에서 다른 예들은 양성모음화를 겪은 형태가 나타나지만 ‘아썌’에 대해서 ‘아썌’, ‘쇼셔’에 대해 ‘쇼샤’, ‘고려’에 대해 ‘고랴’와 같은 명령법 어미는 양성모음화를 겪지 않았다. 즉, 음성모음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모든 경우가 양성모음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예 중에서 실제 16세기 또는 17세기 국어 자료를 감안하여 양성모음화를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7) 안병희·이광호(1990)에서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란 용어 대신 정동사 어미와 부동사 어미란 용어를 사용하였다(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 문법론』, 학연사, 1990, 239쪽). 이 글에서는 안병희·이광호(1990)의 분류 방식을 따르되 명칭은 종결어미, 연결어미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표1-종결어미의 양성모음화 양상

구분	종결어미	
	음성모음 형태	양성모음 형태
감탄법	-괴여	-고야, -괴야
	-너더	-나다
	-근씨	-근샤
의문법	-녀	-냐
	-려	-랴
	-씬녀	-씬나
공동법	-저	-자

(5)의 목록과 표1을 비교해볼 때, 눈에 띄는 사실은 명령형 어미인 ‘-아씨’와 ‘-쇼셔’, ‘-고려’는⁸⁾ 그것에 대응하는 ‘-아씨’와 ‘-쇼샤’, ‘-고랴’ 등이 문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씨’는 16세기 초기의 『이륜행실도』에서 한두 차례 발견되고⁹⁾ 그 이후에 소멸하여 양성모음화를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쇼셔’와 ‘-고려’의 경우는 감탄법의 ‘-근씨(셔)’와 의문법의 ‘-랴’를 생각해볼 때 ‘샤’와 ‘랴’의 음절 구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쇼샤’와 ‘-고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고려’의 경우 ‘-고랴’가 아닌 ‘-고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라’는 ‘-고려’에서 양성모음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의 경우는 변종관계로 차이가 있는 형태들이다.¹⁰⁾ 또 15세기에는 ‘-고라’가 좀 더 일반적이고 16세기에는 ‘-고려’가 일반적이라 오히려 ‘-고라’형이 선대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¹¹⁾ ‘-고려’의 양성모음화에 의해 ‘-고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결국 ‘-고려’에 해당하는 양성모음화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법 어미로 ‘-저’에 대해 ‘-자’는 존재하지만 ‘-저라’에 양성모음화를 겪은 ‘-자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두 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자’의 변화를 겪었지만 ‘-저라’의 경우에 양성모음화를 겪지 않은 것은, ‘-저라’는 이전 시기에

8) ‘-고려’는 15세기 문헌에 “내 아기 위햏여 어더 보고려<석상, 6:13b>”에서처럼 하나의 예만 나타난다.

9) “그디 이 은늘 날 송장에 쓰고 남거든 그디 가졌셔<이륜, 38a>”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0) 안병희·이광호(1990)에서는 ‘-고라’가 보다 직접적이고 ‘-고려’가 완곡한 청원이라고 하였다. 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247쪽.

11) 장윤희(2002)에서도 ‘-고려’가 ‘-고라’의 후대형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장윤희,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연구』(태학사, 2002), 245쪽.

이미 하나의 어미로 굳어졌기 때문에 양성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저>쟈의 변화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의 어미구조체로 결합된 ‘저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양성모음화가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음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양성모음화는 대체로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음절에만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함).

종결어미 가운데 16세기 이후에 양성모음화를 보여주는 예 중 감탄법 종결어미는 ‘고야/괴야, -ㄴ다, -ㄴ샤가 있다. 그런데 ‘괴야는 16세기 문헌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17세기 문헌에 많이 나타난다.¹²⁾

- (6) 가. 도로 누를 ㄱ만니 눈쁘리 습다 다노고야 내 팔즈 보와싸나 <순천김, 73>
 나. 애 쏘 ㅍ가는 형이로괴야 오래 보디 못흐엿더니 <노언, 상:15b>
 나. 애 쏘 ㅍ가 형님이로괴여 오래 못 보왜 <변노, 상:17b>
 다. 네 물 갖기 니근 듯 흐괴야 내 물 갖기 닉디 못흐화 <노언, 상:31a>
 라. 이 활을 쏘 간대로 흔나쁘리노괴야 이런 활을 네 다흙 므서슬 나쁘리는다 <노언, 하:28a>

위의 (6)은 16세기 이후 ‘고야, -괴야의 예를 보인 것이다. (6가)는 언간에 나타나는 예로, ‘다노고야에서 ‘고야를 확인할 수 있다. (6나-라)는 17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예인데, ‘형님이로괴야, 흐괴야, 흔나쁘리노괴야 등으로 나타나 ‘괴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시기에는 ‘괴여일 가능성이 있는데, (6나)의 ‘형님이로괴여 등에서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감탄법 어미 ‘괴여가 양성모음화에 의해 ‘괴야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감탄법 어미 중에는 ‘-ㄴ다형도 새롭게 나타난다.¹³⁾

- (7) 가. 모든 테즈들히 저허 그르흐관다 흐여사 先生이 그제사 말씀미며
 늦밧출 잠싼 ㄴ즈기 흐더시다 <변소, 9:4b>
 나. 피 흐르고 기절흐여 이숙게사 썩여 닐오되 설운다 우리는 이제

12) ‘괴야는 17세기 자료에서만 4회 나타나는데, 16세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보다는 우연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13) ‘-ㄴ다는 16세기 자료에서 전체 19회가 확인되는데, 이 중 16회가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확인된다.

죄인니로쇠이다 <은중경, 17b>

다. 아이고 설운다 즐겨 가는가 무스 일로 가는고 <순천김, 3>
라. 나를 우여니 이베 연즈라 즈식도 못 니르고전 말도 못흐련다 <순천김,
88>

위의 (7)은 ‘-ㄴ다’의 예인데, 15세기 국어에서는 ‘-ㄴ더’로 나타나던 것이다. ‘-ㄴ더’는 감탄 또는 느낌을 나타내는데, 모든 용언 어간과 계사 어간에 직접 통합할 수 있었고, 형용사 어간과는 통합하는 것이 드물다(장윤희, 2002: 147). 그런데 16세기에는 ‘그르흐관다, 설운다, 못흐련다’처럼 ‘-ㄴ다’형이 폭넓게 관찰되고 ‘그르흐-’와 섭과 같은 형용사와 결합한 예도 나타난다. 특히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는 ‘-ㄴ다’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ㄴ더’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가 ‘-ㄴ더’에서 ‘-ㄴ다’로 변화된 시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감탄법 어미 중에는 ‘-ㄴ샤’도 확인된다.¹⁴⁾

(8) 가. 병흐니도 다 도하 유곤니도 일 업시 나니 모다 닐우디 다를샤 이
사람며 느릭 못홀 이를 흐느니 <이륜행(옥산), 11a>
나. 막중이만 맞더란 보내디 마소 항혀 므게 나 다티니 손 첩디 모를샤
흐뇌 <순천김, 6>

(9) 가. 구퓌여 이리 두라 니를써 <변박, 상:23a>
나. 해 진실로 영노 슬갑고 스밋가울서 <변박, 상:15a>

위의 (8)은 ‘-ㄴ샤’의 예이다. ‘-ㄴ샤’는 15세기 국어에는 ‘-ㄴ써’로 나타나던 것인데, 위의 예에서와 같이 16세기에는 ‘다를샤, 모를샤’에서처럼 ‘-ㄴ샤’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는 위의 예 외에도 ‘이실샤, 아닐샤’처럼 ‘-ㄴ샤’ 형태로 나타나지 ‘-ㄴ써’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론 이 시기에도 (9)에서처럼 문헌 자료에서는 ‘니를써, 스밋가울서’에서처럼 여전히 ‘-ㄴ써’나 ‘-ㄴ셔’형이 우세했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이에 대해 양성모음화를 겪은 ‘-ㄴ샤’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문법 어미 중에서 양성모음화를 겪은 예는 ‘-녀, -려’에 대해

14) 16세기 국어 자료에서 ‘-ㄴ샤’가 확인되는 것은 총 5회에 해당된다.

‘-냐, -랴’가 있고, 또 이른바 반어 의문문에 쓰이는 ‘이썸녀’에 대해 ‘이썸나’가 나타난다. 먼저 ‘-냐’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가. 신숨잡 의론¹⁵져 이 심이 도^ㅎ냐 본볼 심 가져오라 내 보와지라
<번노, 하:56b>

나. 모든 셴빅들히 오래 어버시를 아니 가 뵈니 잇^느냐 ^ㅎ여늘 <번소, 9:26a>

다. 님금이 高允^드려 무르사^지 진실로 太子의 니르논 말와 글^ㅎ냐 <번소, 9:46b>

라. 寬이 늦고출 달이 아니^ㅎ야 날회여 널오^티 糞에 네 소니 테어^냐
ㅎ니 <번소, 10:3a>

위의 (10)에서¹⁵⁾ ‘도^ㅎ냐, 잇^느냐, 글^ㅎ냐, 테어^냐’에서처럼 ‘-으냐, -느냐, -어냐’ 등에서 종결어미 ‘-냐’를 확인할 수 있다. ‘-냐’는 이전 시기에 ‘-녀’로 나타나던 것인데 위에서와 같이 16세기에 들어 ‘-냐’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냐’와 평행하게 ‘-랴’도 이 시기에 그 예가 많이 나타난다.

(11) 가. 장춧 이 네 횡덕을 사^르미게 ^ㅎ게 ^ㅎ거니 그 례를 둥히 아니^ㅎ염직
ㅎ랴 <번소, 7:8b>

나. 혼자 안호로 ^ㅁ숨에 붓그러온 주리 업^스랴 ^ㅎ야늘 <번소, 9:52a>

다. 더러운 놈은 ^ㅁ히 더브러 님금을 섬^기랴 <소언, 2:43a>

라. 횡실이 두텁고 공경^티 아니^ㅎ면 비록 ^ㅁ올하나 든^니랴 <소언, 3:5a>

위의 (11)은 ‘-랴’의 예인데¹⁶⁾ 이전 시기에는 ‘-려’의 형태로 나타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위의 ‘ㅎ랴, 업스랴, 섬기랴, 든니랴’에서처럼 ‘-랴’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는 『번역소학』에서 많이 나타나고 16세기 후반의 문헌에서는 매우 일반화된다.

한편 이른바 반어 의문문으로 쓰였던 ‘이썸’이나 ‘이썸녀’는 이 시기에

15) 허웅(1989)에서는 ‘-녀’와 ‘-냐’에 대해 15세기에는 ‘-냐’는 나타나지 않고 ‘-녀’가 흔히 보이는 어형이었던 데 반해, 16세기 문헌의 초기 문헌인 『노결대(번역)』, 『번역소학』에 ‘-냐’가 (일부) 보이기 시작하여 『소학언해』, 『논어언해』 따위의 16세기 후기의 문헌에 일반화된다고 하였다. 허웅, 『16세기 우리옛말본』(샘문화사, 1989), 165쪽.

16) ‘-랴’는 “비록 브를 ^ㅁ 보아도 말스^미 虛^티 아니^ㅎ 전치^랴 <원각경, 서:64b>”에서와 같이 『원각경언해』에 처음 나타난다.

‘이썩냐’ 또는 ‘이썩냐’ 등으로 나타난다.

(12) 가. 외방의 나가면 쏘 너와 훈가지어니썩냐 큰 형님 니르사미 올흐시이다
<번노, 상:41b>

나. 구퇴여 콩딤 밧고디 말 거시어니썩냐 이러면 형님 날우미 올타 <번노,
상:56b>

(13) 가. 이 凡夫에 건너 聖人 무레 드롤 微妙^훈 道를 아디 몬호미썩냐 <육도,
25b>

나. 네 각별이 五分 道^훈 은을 밧고와 줌이 곳 올커니썩냐 므슴 아라
입힐흠 ㅎ리오 <노언, 상:59a>

위의 (12)는 ‘이썩냐’의 예이고, (13)은 ‘이썩냐’의 예이다.¹⁷⁾ 이들은 이전 시기에는 대체로 ‘이썩녀’ 등으로 나타나던 것인데 이 시기에는 ‘이썩냐’ 또는 ‘이썩냐’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예에서 이 시기에 어미의 양성모음화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의문법 어미의 경우, 여느 종결어미에서 나타나는 양성모음화와는 달리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의문법 어미는 15세기 중엽부터 ‘-녀, -려’와 함께 ‘-니아—니야, -리아—리야’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니아, -니야, -리아, -리야’ 등은 종결어미 ‘-가’에서 ‘-기’가 탈락되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냐나 -랴’형이 ‘-녀, -려’형보다 보다 앞선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녀>냐, -려>랴’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문헌상의 출현 양상을 통해 볼 때 허웅(1989: 167)의 지적처럼 ‘-려’는 15세기에서 16세기 초기 문헌에 나타나는 데 비해 ‘-랴’는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16세기를 ‘-려>랴’의 과도기로 보기로 한다.

종결어미 가운데는 공동법 어미의 ‘-져’ 또한 ‘-쟈’로 실현된다.¹⁹⁾ 다음은 그 예이다.

17) 허웅(1989)에서는 ‘썩, 썩, 썩냐, 썩녀’ 등을 강조를 나타내는 도움토씨(보조조사)로 처리하였다. 허웅, 앞의 책.

18) 장윤희(2002)에서는 ‘이썩녀’는 강세 보조사 ‘이썩’과 감탄조사 ‘-이여’의 통합체이므로 이들은 어미일 수 없다고 하였다(장윤희, 앞의 책, 2002, 231쪽). 다만 이 글에서는 안병희·이광호(1990)를 따라 의문법 어미로 처리하기로 한다(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19) 16세기 국어 자료에서 ‘-쟈’는 전체 72회 확인된다.

- (14) 가. 나히 열네해 혼 고을 잇는 孟七保와 婚姻호자 期約호엇더니 <속삼, 열:2a>
 나. 모든 겨집들히 세간 눈화 단 살오자 호며 쏘 즈조 삼지시맏마를 호거늘 <변소, 9:67b>
 다. 후에 원탁기 병 되여셔 닐우디 내 죽자 시젧 번 범 거경을 못 보애라 <이륜(옥산), 33a>
 라. 부테 니르샤디 부모의 은늘 잡고자 호거든 부모 위호야 이 경을 썬 닐그며 <은중경, 22b>

위의 (14)는 ‘-자’의 예인데, 이전 시기에는 ‘-져’로 나타나던 형태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의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이 ‘-자’는 (14가)의 ‘婚姻호자’와 같이 16세기의 『속삼강행실도』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번역소학』에는 이 어형이 일반화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져’가 나타나는 것이다.²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형도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결어미에서의 양성모음화 실현 양상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에서도 실현되었다. 중세국어의 연결어미는 논자에 따라 목록이나 분류가 달라지지만 대체적인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안병희·이광호(1990)에 따라 연결어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15)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 가. 전후 나열: -고
 나. 동시 병행: -며
 다. 양태: -아/어
 라. 원인: -니, -매, -닐/늘, -르썬, -관디
 마. 조건: -면, -든/든, -ㄴ대, -관디
 바. 양보: -나, -오디/우디

20) 김성란(2006)에서는, 『번역노걸대』에서는 ‘-져’가 99회 쓰이고, ‘-자’는 2회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노걸대언해』에서는 ‘-자’만 112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17세기 국어로 갈수록 양성모음으로 통일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성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노걸대류 언해본을 중심으로-』(역락, 2006), 260쪽.

- 사 목적: -라
- 아. 의향: -려
- 자. 회구: -고져, -아져, -과더, -과디여, -깃고
- 차. 한도: -드록
- 카. 정도의 더해감: -르스록, -디웃
- 타. 동작의 연속: -라, -ㄴ다마다
- 파. 사역: -기/기, -게
- 하. 부정 표현: -디, -들, -ㄴ동, -드란

위의 예는 안병희·이광호(1990)에서 제시한 연결어미의 목록이다. 종결어미와 마찬가지로 양성모음화를 논의할 때 연결어미 또한 음성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미만이 양성모음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연결어미는 종결어미에 비해 음성모음으로 구성된 형태가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성모음화를 겪을 수 있는 어미 역시 적을 수밖에 없다. 연결어미에서 일차적으로 양성모음화를 겪을 수 있는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16) 연결어미에서의 양성모음화 가능 목록

- 가. 동시 병행: -며
- 나. 조건: -면
- 다. 의향: -려
- 라. 회구: -고져, -아져, -과더, -과디여, -깃고
- 마. 사역: -게
- 바. 부정 표현: -드란

위의 (16)에서 양성모음화가 가능한 연결어미에는 ‘-며’가 ‘-ㅁㅁ로’, ‘-면’이 ‘-ㅁㅁ으로’, ‘-려’가 ‘-랴로’, ‘-고져, -아져, -과더’ 등은 ‘-고쟈, -아쟈, -과댜’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과디여’는 ‘과디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역의 ‘-게’ 또한 ‘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깃고’와 ‘-드란’ 역시 가능한 양성모음화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ㅁㅁ, -아쟈, -과댜, -과디야, -개, -깃고, -드란’ 등과 같은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시기에 양성모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연결어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양성모음화를 겪은 연결어미 목록

구분	연결어미	
	음성모음 형태	양성모음 형태
동시 병행	-며	-ㅁ
회구	-고져	-고쟈
	-과더	-과다
의향	-려	-랴

표2에서 보듯이 연결어미 중에서 양성모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는 ‘여>야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종결어미에서도 동일한 모습인데, 특히 연결어미에서의 양성모음화 가운데는 ‘며>ㅁ로 변화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근대국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ㅁ’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²¹⁾

- (17) 가. 심원드려란 니르디 말ㅁ 사회들 늬들 다 니르디 마오 <순천김, 41>
 나. 遺漏홈이 잇디 아니^ㅎ며 말ㅁ 갖가온티 유무 글월을 손조 디답디 아니티 아니^호티 <소언, 6:108a>
 다. 효도로온 모습도 업스ㅁ 즈비로운 모습미 업스면 <장수경, 15a>

위의 예는 연결어미 ‘-ㅁ’의 예인데, ‘말ㅁ, 말ㅁ, 업스ㅁ’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동일한 문헌에서 ‘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전 시기의 형태가 ‘며’라는 점을 감안하면 ‘-ㅁ’는 ‘-며’의 양성모음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6세기 국어 자료에서는 ‘-ㅁ’의 예가 ‘-며’에 못지않게 나타나는데, 근대국어에서는 ‘-ㅁ’가 이어지지 않고 음성모음 계통인 ‘-며’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한편 ‘회구(希求)’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에는 ‘-고져’와 ‘-과더’가 양성모음화를 겪어 ‘-고쟈, -과다’로 나타난다.

- (18) 가. 어미 쯤 놀이 고기 먹고쟈 커늘 病이 이리더러 가 언다가 묻^ㅎ야 <속삼강, 효:2a>
 나. 이리^ㅎ면 내 요스시 도로 가고쟈 하니 며^츛 나리 도^ㅎ고 <번노, 하:71b>

21) 16세기 국어 자료에서 ‘-ㅁ’는 전체 35회가 확인되는데 그중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22회가 확인된다.

다. 부테 니르샤디 부모의 은늘 갑고자 흐거든 부모 위햐야 <은중경, 22b>

라. 말 업시 쇼쥬를 뭇게 히여 먹고 죽고자 요스이는 교규를 호디 <순천김, 41>

(19) 가. 도로혀 나를 내티일 힝더글 흐과다 흐느니 장춧 므스게 쓰리오
흐고 <삼강행(동경), 열:2b>

나. 거슥쓰며 막달이여 이기디 몯홀 근심이 업과다 흙이나라 <소언, 서:2a>

다. 글오디 반드시 先人의 일을 廢티 말라 흐과다 브라더니 <소언, 4:46b>

라. 방도 보고 기별도 몯 드레라 이번 이를 흐과다 흐노라 <순천김, 173>

(18-19)은 ‘희구’를 나타내는 ‘고자’와 ‘과다’의 예이다. (18)에서 ‘먹고자, 가고자, 갑고자, 죽고자’ 등과 같이 ‘고자’가 확인된다. (19)에서는 ‘흐과다’나 ‘업과다’ 등과 같이 ‘과다’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시기에는 ‘고져’와 ‘과더’ 등으로 나타나던 것인데, 양성모음화에 의해 각각 ‘고자, -과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의향’을 나타내는 어미 ‘-랴’에서도 확인된다.

(20) 가. 느미 말 드르랴 현대 신문이 모로매 주규려 커늘 <삼강행(동경), 충:32b>

나. 장춧 어름을 삐고 어드랴 흐더니 어름이 므득 절로 헤여디여 <소언, 6:22a>

다. 이제 이 下民이 或 敢히 나를 侮흐랴 흐야늘 <맹언, 3:26a>

라. 무명을 보내려 터니 𠄎르 니블 오솔 흐랴 흐더라 흐니 그도 몯흐고 <순천김, 9>

위의 예에서 ‘드르랴, 어드랴, 侮흐랴, 흐랴’ 등에서 ‘-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랴 흐-’ 구성으로 쓰여 의향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 예는 이전 시기에는 ‘-려’로 나타나던 것인데 역시 16세기에 들어서 어미의 양성화에 의해 ‘-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III. 양성모음화의 원인

16세기에 나타나는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일부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가운데 ‘여>야’가 대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양성모음화를 경험한 목록을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1) 가. -고여, -괴여, -니더, -르셔, -녀, -려, -쁘녀, -져
나. -며, -고져, -과더, -려

위에서 종결어미에서는 감탄법과 의문법, 그리고 공동법 어미 등에서 이러한 양성모음화가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결어미 중에는 동시 병행, 회구나 원망, 그리고 의향을 나타내는 어미에 한정됨을 볼 수 있다. 반면 양성모음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2) 가. 종결어미: -야썸, -쇼셔, -고려
나. 연결어미: -면, -아져, -과티여, -게, -긋고

위의 예들은 양성모음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성모음화의 예를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위의 예 중에는 일찍부터 소멸된 형태들도 있다. 가령, ‘야썸, -아져, -과티여’ 등은 이른 시기에 소멸된 형태들이다. 그러나 ‘쇼셔, -고려, -면, -게, -긋고²²⁾’ 등은 후대에도 이어진 형태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성모음화를 겪지 않았다. 이들이 양성모음화를 겪지 않은 것은 양성모음화의 성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면’과 ‘-긋고’ 등은 다른 형태와는 달리 음절 형태가 폐음절 구조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만이 ‘며’는 ‘마’와 같은 양성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었던 반면 ‘-면’은 ‘만’으로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긋고’ 역시 ‘-긋고’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은 개음절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성모음화가 실현된 환경은 공통적으로 ‘여’로 볼 수 있다.

22) ‘-긋고’는 안병희·이광호(1990)에 의하면 현대국어의 ‘-게끔’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254쪽.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구체적인 음절은 ‘여, 더, 셔, 러, 저, 며’인데, ‘겨’와 같이 연구개음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겨’와 같은 음절구조가 어미에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절 분포상으로 특이점은 지적할 수 없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미구조체에서의 양성모음화는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음절, 그것도 ‘여’와 같은 음절구조에서 ‘야’와 같은 음절구조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성모음화가 적용된 ‘-고야, -ㄴ다, -ㄴ샤, -냐, -랴, -쟈’ 등에서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게’가 ‘-개’로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도 음절구조가 ‘여’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쇼셔’와 ‘-고랴’이다. 이 두 형태는 ‘-쇼샤’, ‘-고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성모음의 형태를 찾을 수 없다. 물론 ‘-고랴’의 경우는 ‘-고랴’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성모음화의 형태 ‘-고랴’의 형성을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쇼셔’에 대해 ‘-쇼샤’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양성모음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³⁾

그러면 양성모음화가 실현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들에 대해 몇 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들 ‘여’의 성질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어미구조체의 마지막에서의 ‘여’는 이전 시기의 형태가 X+여나 더 나아가 ‘이+어’의 구성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3) 가. -괴여: 고+ㄴ+이+어
 나. -ㄴ더: ㄴ+ㄷ+이+어
 다. -ㄴ셔: ㄴ+스+이+어
 라. -쟈: 지+이(?)+어

위의 (23)은 감탄법 어미의 예로, ‘-괴여’는 이전 시기에 ‘고녀’ 등으로 소급할 수 있는데, ‘고+ㄴ+이+어(감탄법 어미)’로 분석될 수 있다. ‘-ㄴ더’와 ‘-ㄴ셔’는 ‘ㄴ, ㄴ+ㄷ, 스+이+어’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²⁴⁾, 중세국어에서

23) 물론 현대국어 관용구의 예이지만 ‘하느님 맙소사’의 경우 ‘-쇼셔>쇼샤’의 예로 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헌상에서는 ‘-쇼샤’의 예를 확인할 수 없다.

24) 석독구결에서의 ‘ㄱ’을 ㄴ과 ㅇ(ㄷ):(이여)의 결합체로 보고 이때의 ㄷ을 호격이나

는 ‘부름’이나 ‘나열’, 그리고 ‘감탄’의 의미를 갖는 어미로 알려졌다.²⁵⁾ 그런데 이들 어미 앞에는 모두 계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계사가 화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는 원망의 동사 어간 ‘자-’에 감탄의 ‘여’가 화합된 것이라는 것(이탁, 1999: 132)을 받아들인다면 ‘저’ 속에는 계사 ‘이-’가 있는 것으로 화자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결형 어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4) 가. -며: ㅁ+-이-+-어²⁶⁾
 나. -려: -ㄹ+-이-+-어

(24)의 연결어미의 ‘며’나 ‘려’ 역시 이전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계사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알려졌다(이기문, 1972). 즉, ‘며’나 ‘려’는 동명사 형에 ‘이-’와 ‘어’가 결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양성모음화와 관련을 맺는 어형들은 기원적으로 계사가 화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계사가 개재할 수 없는 ‘쇼셔’가 ‘쇼샤’가 될 수 없는 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5) -쇼셔: -시- + -오-(?) + -셔

위의 예는 ‘쇼셔’를 형태 분석한 것인데, ‘쇼셔’는 대체로 ‘시-’와 ‘오-’ 그리고 종결어미 ‘셔’로 분석될 수 있다. 이때 ‘오-’의 존재가 문제가 되지만²⁷⁾ ‘셔’는 향가나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쇼’에 대응되는 것으로 종결어미로 취급될 수 있다.²⁸⁾ 그런데 ‘셔’는 ‘ㄹ셔’의 ‘셔’와는

감탄조사로 보기도 한다. 장윤희,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구결연구』 4(1998), 75쪽.

25) 이에 대한 분석은 정재영(『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1996), 장윤희(앞의 책, 2002) 참조.

26) 이러한 논의는 현대국어의 ‘으며’를 ‘음+이-+-어’로 분석한 서태룡(1988)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서태룡, 『국어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탑출판사, 1988).

27) 김영옥(1999)에서는 이때의 ‘오-’를 화자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김영옥, 「통시적 형태 분석의 문법사적 의미(화합 형태 ‘쇼셔, -어쨌’를 중심으로)」, 『형태론』 1-1(박이정, 1999).

28) 이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의 책) 참조.

달리 그 자체에 계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양성모음화가 실현된 형태들은 공통적으로 계사의 화합형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쇼셔’는 계사가 화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의문법 어미의 ‘-냐, -랴’ 등은 15세기 국어에 일반적인 ‘-녀’와 ‘-려’에서 양성모음화에 의하여 ‘-냐, -랴’ 등으로 실현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니아, -니야, -리아, -리야’ 등이 15세기 국어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문법 어미 ‘-가’가 결합된 형태에서 ‘ㄱ’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음절 축약을 거친다면 충분히 ‘-냐, -랴’ 등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	ㄱ탈락	활음첨가	음절 축약
가. 니+-가>	-니아	-니야	-냐
나. 리+-가>	-리아	-리야	-려

위의 예에서 중세국어의 ‘-니야’와 ‘-리야’는 ‘니’와 ‘리’에 ‘가’가 결합되고 이어 ‘ㄱ’이 탈락하여 ‘-니아’나 ‘-리아’형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ㄱ’탈락은 일반적으로 ‘ㄴ’이나 ‘ㄷ’ 뒤에서 탈락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는 모음 뒤에서 ‘ㄱ’이 탈락했으므로 ‘니’와 ‘리’ 뒤에 계사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석독구결 자료 등에서 계사로 볼 가능성이 없음도 밝혀져 그것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²⁹⁾ 다만 ‘-니야’나 ‘-리야’의 경우 ‘-니가’와 ‘-리가’에서 ‘ㄱ’탈락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므로 ‘-니아, -니야’ ‘-리아, -리야’가 형성된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그런데 ‘-니아’나 ‘-리아’는 음절 축약이 이루어지면 ‘-냐’나 ‘-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냐, -랴’를 ‘-녀’와 ‘-려’에서 양성모음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만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의문법 어미는 양성모음화의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의문법 어미를 제외하면 16세기 국어의 어미구조체에서의 양성모음화는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음절의 ‘여’와 관련이 있고, 이 ‘여’는 기원적으로 계사가 화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현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모음화는 이 계사의 활용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29) 이에 대해서는 장윤희(앞의 책, 2002) 참조.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원적으로는 이들 구조체에 계사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왜 계사의 활용형 ‘여’가 특별히 16세기 국어에 ‘야’로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화자들이 16세기 국어의 어미구조체 가운데 ‘여’에 계사가 화합된 것을 인식했고, 그것에 따라 양성모음화가 실현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을 지나친 가설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사의 활용형 ‘여’를 ‘야’로 발음하는 방언이 있었고 이것이 확대되어 중앙방언에 까지 세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경우도 ‘하-[爲]+야’의 결합형이 ‘하여’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 방언권과 ‘하’ 방언권 ‘혀’ 방언권으로 분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을 감안한다면 그 시기에 ‘야’를 ‘여’로 발음하는 방언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의 경우는 양성모음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언간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양성모음화는 방언상으로는 실제 언어상으로 좀 더 폭넓게 발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추에 의해 양성모음화를 겪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종결어미는 유난히 양성모음으로 끝나는 구조가 많은데 이것에 유추되어 ‘여’형이 양성모음인 ‘야’형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러한 견해는 안병희(1965)나 김완진(1975)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된 것인데,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쇼샤’ 등은 왜 ‘쇼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인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은 16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어미의 양성모음화 현상을 고찰한 것이다. 16세기에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에 ‘녀>냐, 려>랴, 며>먀, 저>쟈’ 등과 같이 ‘야>야’와 같은 양성모음화가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현된 이유에 대해 논의해본 것이다. 본론에서 논의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ㄱ>ㄱ, ->; ㅌ>ㄴ’가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ㄱ>ㄱ(ㅋ>ㅌ)’에 국한된다.
2.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어미의 구성 성분상 음성모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3.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모음조화 등에 의한 이형태 관계에 있는 어미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양성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4. 선어말어미는 어미의 양성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결어미에서 양성모음화를 겪은 것은 감탄법 어미의 ‘-고야, -괴야, -냐, -르샤’가 있고, 의문법 어미의 ‘-냐, -랴, -썩냐’, 그리고 공동법 어미의 ‘-자’가 있다. 연결어미는 ‘-며, -고자, -과다, -랴’ 등이 양성모음화를 겪었다.
6. 양성모음화를 겪을 수 있었지만 양성모음화의 예가 확인되지 않은 예는 ‘-쇼셔’와 ‘-게’ 등이다.
7. 양성모음화를 겪은 환경은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음절구조가 ‘여’에서 ‘야’로 변화된 것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사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8. 양성모음화의 원인으로는 계사의 활용형 ‘여’를 ‘야’로 발음하는 방언이 있었고, 이것이 세력을 확장하여 ‘여>야’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유추에 의한 확대도 종결어미가 대체로 양성모음으로 끝나는 것에 유추되어 ‘여>야’의 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고은숙,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2011.
- 권정숙, 「16세기 국어의 마침법 연구 -시킴법과 띄임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11, 1987, 85-99쪽.
- 김성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노결대류 언해본을 중심으로-』. 역락, 2006.
- 김영옥, 「통시적 형태 분석의 문법사적 의미(화합 형태 ‘쇼셔, -어썸’를 중심으로)」, 『형태론』 1-1, 박이정, 1999, 71-91쪽.
- 김완진, 「음운 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1971a(김완진, 1971b에 재수록).
- _____,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1971b.
- _____, 「변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의 비교 연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15-28쪽.
- 김정태,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006, 279-299쪽.
- 남광우, 「단모음화 음성모음화 연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1-12쪽.
- 서태룡, 『국어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1988.
- _____, 「16세기 청주 간찰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57-93쪽.
- 안병희, 「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건국대학교)』 1, 1965, 59-82쪽.
-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 문법론』. 학연사, 1990.
- 유창돈, 「이조어의 말어미 고」. 『인문과학』 10,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3, 7-24쪽.
- 이기문, 『개정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1972.
- _____, 『십육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1978.
- 이탁, 「원망의 형태소 ‘-려’의 기능 연구」. 『어문학』 66, 한국어문학회, 1999, 131-149쪽.
- 이현희, 「국어 종결어미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1982, 143-163쪽.
- _____, 「-아져와 -良結」.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1995, 411-428쪽.
- 장윤희,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구결연구』 4, 1998, 57-84쪽.
- _____,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2002.
- 정재영, 『의존명사 ‘드’의 문법화』. 태학사, 1996.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 한재영, 『십육세기 국어 연구』. 신구문화사, 1996.

허웅, 『16세기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1989.

황문환,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태학사, 2002.

황선엽,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국 문 요 약

이 글은 16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어미의 양성모음화 현상을 고찰한 것이다. 양성모음화에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 먼저, 어미의 양성모음화는 논리적으로 어미의 구성 성분상 음성모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은 모음조화 등에 의한 이형태 관계에 있는 어미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양성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선어말어미는 어미의 양성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종결어미에서 양성모음화를 겪은 것은 감탄법 어미인 ‘-고야, -괴야, -나, -근샤’가 있고, 의문법 어미인 ‘-냐, -랴’, 그리고 공동법 어미인 ‘-쟈’가 있다. 연결어미는 ‘-마, -고자, -과다, -랴’ 등이 양성모음화를 겪었다. 하지만 양성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셔’와 ‘-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양성모음화를 겪은 환경은 어미구조체의 마지막 음절구조가 ‘여’에서 ‘야’로 변화된 것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사 ‘-아’를 포함하고 있다. 양성모음화가 발생한 원인은 계사의 활용형 ‘여’를 ‘야’로 발음하는 방언이 있었고, 이것이 세력을 확장하여 ‘여>야’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종결어미가 대체로 양성모음으로 끝나는 것에 유추되어 ‘여>야’의 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고일 2012. 9. 20.

수정일 2012. 11. 3.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양성모음화(positive vowelization), 음성모음(negative vowel), 어미구조체(endings from), 쇼셔(-shoshyeo), 감탄법 어미(exclamative endings)

